

25.05.12.(월)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배달의민족,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도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참여 전격 합의

오늘(5/12) 농성 천막을 해제하고, 사회적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 돌입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5월 12일 오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8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온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 및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에 따라 농성단은 오늘(5/12) 오후 천막을 해제하고, 앞으로 두 달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식업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대비 2.7%p 하락했으며,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 17.8% 대비 절반 수준이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수익 불균형에는 자영업자들이 주문금액의 최대 49%를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자영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반쪽짜리 상생

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배달플랫폼들이 실질적인 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해 배달앱 TF 책임의원인 이강일 의원 주도로 지난 2월부터 쿠팡이츠 등과 함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참여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물론 국회의장실까지 나서서 이를 촉구한 바 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폐지, 포장수수료 유료화, 무료배달 강요 및 최혜 대우 요구 관련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등으로 자영업자의 반발을 사왔던 배달의민족이 대화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상생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배달앱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제 입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수수료 구조 개편과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